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김가현, 김주현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다음주 독서: 이종민, 이성준	1 차 봉헌금: \$ 278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2 차 봉헌금: \$ 138
다음주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는 윌프레드	-----
이번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조성익 토마스모어	합 계: \$ 416
다음주 미사해설: 조성익 토마스모어, 김태진 하상바오로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홍유리 율리아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학부생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성당 사무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 시 사제관 (11 월 18 일, 12 월 2, 16, 30 일)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 시 45 분 성당친교실 (11 월 12, 26 일, 12 월 10, 23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주. 11 월 5 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복음 이어서>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11 월은 ‘위령성월’입니다.
‘위령성월’은 세상을 떠난 모든 형제자매를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교회는 오랜 전통에 따라 ‘모든 성인 대축일’ 다음 날인
11 월 2 일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성인들을 먼저 기념하고,
이튿날에는 연옥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자는 뜻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성당 Facebook 그룹: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32 주일]

2011 년 11 월 05 일

<제 1 독서> 지혜서, 6, 12-16

<제 2 독서> 테살로니카 1 서, 4, 13-18

화답송

-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 ◎ 알렐루야.

복 음

마태복음, 25, 1-13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복음 옆면에 이어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오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오늘의 성가] 시작: 찬미하여라 봉헌: 아버지 당신 손에
성체: 주여 주 예수여 파견: 주님을 찬양하라

위령기도

- † 지극히 어지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우준식 미카엘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 우준식 미카엘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에 무수한 은혜를 베푸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모든 성인의 통공을 드러내 보이셨으니 감사하나이다.
-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애로이 들으시어, 우준식 미카엘에게 천국 낙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님, 제 소리를 들어주소서.
- 제가 비는 소리를 귀여겨 들으소서.
- 주님께서 죄악을 해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오히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사와 더 더욱 당신을 삼기라 하시나이다.
- 제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오며,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제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나이다.
- 주님께는 자비가 있사옵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음이오니
- 당신께서는 그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리이다.
-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 애련함이 크시오니, 저의 죄를 없이주소서.
- 제 잘못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허물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 저는 저의 죄를 알고 있사오며, 저의 죄 항상 제 앞에 있삽나이다.
-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죄를 얻었삽고, 당신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 판결하심 공정하고, 심판에 휘지 않으심이 드러나리이다.
- 보소서, 저는 죄 중에 생겨났고, 제 어머니가 죄 중에 저를 배었나이다.
- 당신께서는 마음의 진실을 받기시니, 가슴 깊이 슬기를 제게 가르치시나이다.
- 히숨의 채로써 제게 뿌려주소서. 저는 곧 깨끗하여지리이다.
- 저를 씻어주소서. 눈에서 더 희어지리이다.
- 기쁨과 즐거움을 돌려주시어, 바수어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 저의 죄에서 당신 얼굴 돌이키시고, 저의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센 정신을 새로 하소서.
-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옵시고, 당신의 거룩한 열을 거두지 마옵소서.
- 당신 구원, 그 기쁨을 제게 도로 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굳혀주소서.
-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오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피 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허가 당신 정의 높히 일컬으오리다.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에 공동체 식사 및 신부님 생신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 주일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는 대림시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대상은 만 4 세 ~ 만 8 세, K~3 학년입니다. 만 4 세 미만의 경우 부모가 함께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는 말씀의 전례와 강론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 미사 진행을 도와 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역시 대림시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복사 (첫영성체 받은 사람. 나이/성별 제한 없음), 미사 안내 (미사전 안내 및 봉헌 바구니 봉사, 자격 제한 없음)
- 주일학교 교사나 미사 봉사에 참여해 주실 분은 구역장님이나 사목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 주님, 제 입시울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니
- 제사는 당신께서 즐기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어도 받지 아니하시리이다.
- 하느님. 저의 제사는 통화의 정신, 하느님께서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을 낮추 아니 보시나이다.
- 주님, 인자로이 시온을 돌보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쌓아주소서.
- 법다운 제사와 제물과 번제를 그때에 받으시리니
- 그때에는 사람들이 송아지들을 당신 제단 위에 바치리이다.

† 주님, 세상을 떠난 모든 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또한 저희의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하소서.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기도합시다.

언제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너그러이 용서하시는 하느님,

이 세상을 떠난 우준식 미카엘을 기억하시어

사탄의 손에 넘기지 마시고

거룩한 천사들에게 고향 낙원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우준식 미카엘은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고 믿었사오니

지옥벌을 면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우준식 미카엘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 우준식 미카엘과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